

43

포도나무의 비유

요한복음 15장 1~11절



“포도밭에 포도가 땡글땡글 땡글땡글 땡글땡글 잘도 열렸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포도나무 가지인 포동이와 포순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 더워. 우린 언제까지 여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야? 난 빨리 여기서 떨어지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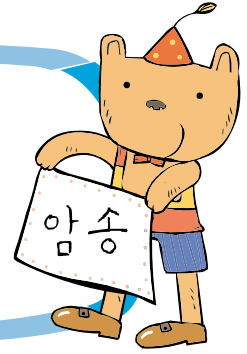
“포동아,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야.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돼.”

“싫어, 난 마음대로 살고 싶단 말야. 햇빛도 너무 싫고, 난 저기 밑에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싶단 말야.”

“안돼! 우리가 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힘들지도 않잖아. 우리는 나무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포동이는 포순이가 말했지만 나무 밑으로 떨어졌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5)



“야~ 너무 좋다. 여기에 있으니 너무 시원하고 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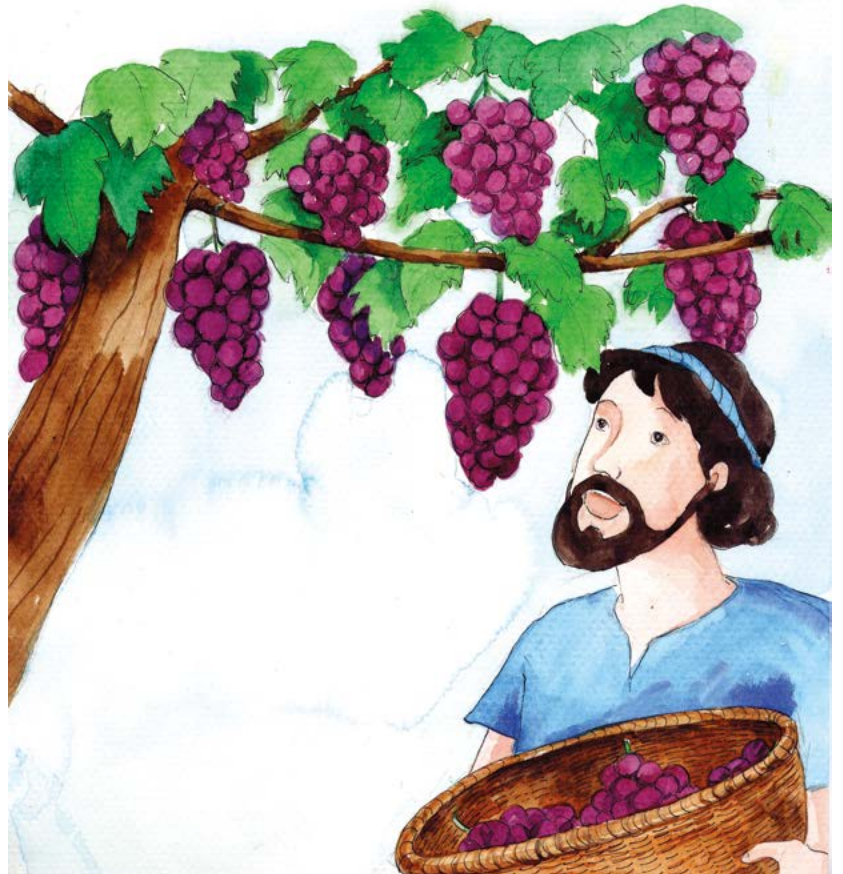
포동이가 떨어지고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엉엉...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너무 배가 고파. 힘도 없고...”

포동이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점점 말라 갔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포동이는 너무나 슬퍼서 울었습니다.

농부는 포도나무를 돌보고 포도나무는 물과 양분을 가지에까지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며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변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공부

포도나무 가지

1.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나도 열매를
맺고 싶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
양분도 먹고 너무 좋다.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고.

우리들

내 친구
전도했는데
구원받았어요.



말씀을
잘 배우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아! 나도 성경도
더 잘 알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데...

구원이

2. 구원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요한복음 15:5)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는 교제 안에 있을 때 기쁜 일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썸을 배우고

열매를 맺어요



선생님: 구원받은 사람은 바른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고 전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민준: 야! 돼지야, 거기 간식 좀 줘.

소영: 너 말썸 못 들었어? 나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 하시잖아.



창민: 때로는 우리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습관이 되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

민준: 그래? 그럼 나도 용훈이처럼 해 봐야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엄마하고 약속도 해야지.

용훈: 나도 나쁜말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나쁜말 하지 않게 해 달라고 자기 전에 기도했어. 그리고 엄마한테 내가 나쁜 말을 할 때마다 용돈을 깎기로 약속을 했어. 그랬더니 나쁜 말 하는 습관이 고쳐지고 친구들과하고 더 친해졌어.



민준: 그럼 내가 나쁜말 하는 습관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1. 민준이의 나쁜 습관을 고치는 데 누가 좋은 생각을 이야기해 주었나요?

2. 여러분도 교제를 통해서 나쁜 습관을 고친 경험이 있나요? 아래에 적어 봅시다.

민준이는 교제 안에 있는 한 틀림없이 나쁜 말하는 습관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알아볼까요

*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많은 것을 얻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산지에서는 이 세 종류의 나무가 함께 자라기 때문 입니다.

포도나무는 무화과나무와 함께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장 특징적인 식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지가 길게 늘어진 나무로서 따뜻한 지역에서 널리 재배 되고 있습니다. 포도는 그냥 먹거나 건포도를 만들

어 먹습니다. 그리고 일반 음료수였던 포도주로 만들어 먹습니다. 일단 포도가 익으면 거두어 포도즙 틀에 넣고 즙을 짰는데 옛적에는 주로 발로 밟아서 즙을 짜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포도즙은 질그릇 항아 리나 염소 가죽부대에 넣어서 발효시켰습니다. 포도나무는 이렇게 그 열매인 포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었습니다. 에스겔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그냥 불에 태워 땀감으로 쓰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제 안에 있어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모님
난

선생님
난